

광주 자치구 '특혜 경로당' 편법 지원 논란

서구 보조금 지원 경로당, 퇴직공무원 행정동우회가 6년간 독점 남구 구의원 전용 경로당 만들고 혈세 지원...공무원노조 등 반발

광주시 자치구가 전·현직 구의원과 퇴직 공무원에게 편법으로 사무실과 지원금, 보조금 등을 제공해 '혈세 지원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광주시 서구에 따르면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경로당이 지난 6년여 동안 퇴직 공무원 친목단체인 '광주시 행정동우회' 사무실로 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동우회는 지난 2017년 이 경로당이 경로당 지정 신고를 할 때부터 실내에 칸막이를 세우고 한쪽에 사무실을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이용하는 회원 88명이 모두 광주시 행정동우회 회원들로 밝혀져 사실상 경로당을 독점하고 있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매달 34만원의 운영비는 물론 가전제품, 비품 구입 비용 460만원을 포함해 지금까지 246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는 경로당이 당초 목적과 맞지 않게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별다른 제재나 지적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로당 지정 신고 당시에는 회원 수, 면적, 시설 구비 등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이후로는 타 경로당 회원이 있는지 중복 인원만 확인한 것이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한 안전 점검, 비품 조사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또한 광주시 행정동우회에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홍보 책자 제작, 봉사활동 등 명목으로 72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행정동우회는 이 중 5400여만원을 '동우회 홍보 책자' 제작에 썼으며, 나머지는 봉사활동 중 식비·현수막 제작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구는 이 경로당에 대해 자체 감사에 착수했으며 서구 내 경로당 236개소를 전수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당초 경로당 지정신고·수리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여부와 운영비 지급 등 관리·감독 전반에 대해 자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광주시 남구도 혈세로 '남구의원 전용 특별경로당'을 설치해 논란이다.

남구는 지난 10월 광주시 남구 진월동 한 건물 2층을 임차해 전·현직 남구의원들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경로당을 설립하고 지난 5일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이 경로당은 이름부터 '의정동우회 특별경로당'인데다 회원 명단이 남구 의정동우회 회원 명단과 정확히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구는 이 경로당에 임차 보증금 5000만원, 리모델링비 1990만원, 가전제품 등 물품 지원 1700만원 등을 지원했으며 월세도 82만 5000원씩 5년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지자체가 의정회에 특혜성 예산을 주기 위해 짚수를 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자체는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해 경로당 지원 명목으로 수천만원 예산을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남구 관계자는 "전·현직 구의원들이 모인 의정동우회 회원들이 65세를 넘었으므로 노인복지법과 관련 조례 등에 따라 특별경로당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혈세 지원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남구지부도 13일 성명을 통해 "의정회에 사무실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경로당으로 위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사무실을 주민의 품으로 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광주 시민단체인 '참여자치21'은 14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동우회와 의정동우회 등 공직에 있다 퇴직한 사람들의 친목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한 광주시 조례와 근거가 되는 행안부 시행령을 위반했으면서도 위법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광주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규탄한다"면서 "정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위법 상황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15일 오전 11시 광주시청에서 '의원 전용 경로당'과 '행정동우회'의 보조금 지급·특혜 경로당 설치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민헌기 기자 hyunki@kwangju.co.kr

성관계 불법 촬영·공유 초등학교 교사 징역형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해 지인들에게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해 2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과 신체적 접촉을 한 장면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뒤 친구인 B(33)씨와 지인 등에게 6개월 동안 7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 등 지인 3명에게 지난해 2월부터 9개월 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다른 여성들의 몸 일부나 신체적 접촉 장면을 찍은 불법영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4명 모두 불법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크고 사회적으로 해악이 큰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

화정아이파크 내년 3월부터 철거

해체계획서 초안 마련...광주경찰 11개월만에 수사 마무리

현대산업개발 등 21명 송치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던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 관련 수사가 11개월만에 마무리됐다.

도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 서구청에 제출한 화정아이파크 해체계획서 초안을 완성하고 철거 계획을 구체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경찰은 화정아이파크 관련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관계자 등 총 22명을 입건 수사한 결과 6명을 구속 송치,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공사와 갑리, 하도급 업체, 불법 재하도급 업체 관계자 18명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과 하도급 업체 2명, 갑리 1명 등 6명은 구속 송치됐으며 하원기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 등 현대산업개발 및 하청업체 직원 등 11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토지매입업체 대표 등 2명과 철거업체 관계자 2명 등 4명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관련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1명은 불송치됐다.

또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2일 화정아이파크 '해체계획서'의 초안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정아이파크는 건축물관리법상 건축물로 취급되지 않으며 해체·재시공 작업이 기존 공사의 연장선으로 취급돼 '해체공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서구는 이번이 초유의 작업인 만큼 건축물관리법과 별개로 해체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안전관리계획서 내 '해체공사 세부 안전관리계획'을 일종의 해체계획서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계획서에는 해체 대상·공법, 해체순서 등 내용이 포함됐다.

계획서상 철거 공법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섞인 와이어(줄)를 이용한 절삭 공법, 굴삭기 압쇄 공법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레일 이동식 벽체 거꾸집 'RCS 갯뿔'을 활용하거나 호이스트 크레인 줄로 작업자나 잔해 등을 옮기겠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개 층을 해체하는 데는 2주씩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산업개발은 내부 검토와 갑리단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다음주 초 서구청에 계획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이후 행정 절차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안전관리계획서 제출, 공사중지명령·작업중지명령 해제 등이 남았으며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내년 3월께로 예정됐다.

한편 화정아이파크에서는 현재 추가 붕괴 위험이 있는 기둥·벽체를 철거하는 '안정화 작업'이 진행중이며 98.1% 완료됐다. 동측 기둥 2개 조각을 절거하는 작업만 남았으며 오는 26일까지 마무리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빙판길 시내버스 '꽂' 광주시 동구 내남동을 지나던 시내버스가 14일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정차돼있던 승용차와 부딪혔다. 시내버스 승객 30여명 중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여수·완도서 안타까운 사망사고

방충망 고치던 시각장애인 추락사 배추 내리다 자신 차에 치여 숨져

여수에서는 30대 시각장애인이 창문을 수리하려 추락해 사망하고, 완도에서는 김장을 하려던 60대가 자신의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전남 곳곳에서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잇따랐다.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밤 11시 50분께 여수시 신월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시각장애인

A(58)씨가 추락해 숨졌다.

경찰은 맞은편 등에 설치된 CCTV 등을 통해 A씨가 떨어져 있는 베란다 방충망을 수리하려다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선원으로 일을 하던 중 질병으로 최근 시력을 잃고 변변한 직장도 구하지 못해 모태생활을 이어가다 여수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도움으로 지난 5월부터 이 아파트에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모와 형제도 없는 A씨는 자립센터의 도움을 받으며 지역장애가 있는 20대와 30대 남성 2명과 함께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보이지 않는 눈으로 창문을 수리하려 나섰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같은 날 낮 12시 20분께에는 완도군 고금면의 한 주택에서 A(64)씨가 자신의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도경찰은 A씨가 집 마당에 차를 세운 뒤, 트럭에 실린 김장용 배추를 꺼내기 위해 차량 뒤편에서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전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촉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 분)

▶ 경매 물건 추천 ◀

광주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평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평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평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평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평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유암동 (아파트)복산블루 ▶ 감평가 7억5,700원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